

## 『윤치호 일기』를 통해 본 이광수 ‘친일’의 배경

-민족 내부의 분열과 일제의 탄압

임수만\*

### 목차

1. 머리말
2. 『윤치호 일기』에 대하여
3. 『윤치호 일기』에 나타난 민족운동 내부의 분열과 이광수의 모습
  - 1) ‘서북파’와 ‘기호파’의 대립
  - 2)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
  - 3) ‘(수양)동우회 사건’ 전후의 몇 가지 풍경
4.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佐翁 윤치호(1865-1945)가 60년 넘게 기록한 『윤치호 일기』(1883-1943)의 사료적 가치에 주목하여 그에 나타난 이광수의 면모를 추적해보았다. 연구의 출발점은 구체적으로, 춘원 이광수의 친일의 계기와 동기가 무엇일까 하는 물음에 있었다. 본 연구자는 『윤치호 일기』를 읽으며 춘원의 전향이 식민지의 탄압 정책에 기인함은 물론, 이 민족에게 저주와 같이 반복되어 온 지역감정과 파벌싸움, 그리고 이념 논쟁 등에서 발원한 민족운동 내부의 분열상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는 그런 싸움과 공격에 휩싸일 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서곤 하던 그가 왜, 어느 순간 ‘친일’로 자신의 입장을 ‘전향’하게 되었는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시원스럽게 풀리지 않는 대목이 있었다.

---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이에 대해서는 ‘(수양)동우회 사건’ 전후의 상황을 자세히 검토함으로써 그 단서를 찾고자 했다.

연구 결과, 춘원 이광수가 친일로 전향한 것은 이미 알려진 바대로, 일제의 강압을 그 첫 번째 요인으로 꼽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홍업구락부 사건’(1938.5.) 관계자들을 구해내기 위해 윤치호가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광수 또한 ‘수양동우회 사건’(1937.6.)으로 구속된 동지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광수의 경우에는 윤치호와 달리 자기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재판 또한 5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말과 글, 그리고 행동을 통해 계속하여 자신의 친일로의 전향을 증명해야만 했던 상황이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보았다.

두 번째로 그의 친일이 적극적이었던 이유에 대해 본고에서는 이러한 외적 요인 말고도 내적인 요인 또한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수필 「육장기」(1939.9)에 나타난 그의 고백에 주목해 보았다. 즉, 지금까지의 실력양성을 통한 민족 개조로는 안 되고 이제는 ‘혼’을 개조하는 신앙의 수준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러한 각성은 식민 통치자들의 억압에 의해 촉발된 것이자 춘원 스스로 자신이 겪고 있었던 절망스런 상황 속에서 이르게 된 결론이기도 했다. 즉, 그는 식민지로 전락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파쟁만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의 ‘독립’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그의 준비론은 ‘실력양성’을 넘어서, 민족성과 인간성 자체를 개조하는 종교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

주제어: 이광수, 윤치호, 안창호, 분열, 민족 개조, 친일 전향

## 1. 머리말

윤치호(1865-1945), 최린(1878-1958), 최남선(1890-1957), 이광수(1892-1950) 등 우리 근현대 역사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많은 인재들이 식민지 시기 친일의 낙인이 찍힌 채 해방을 맞이했다. 그들의 말로는 비참한 것이었다. 그토록 민

죽에 대한 큰 사랑을 품었고, 동포들로부터도 많은 존경을 받았던 그들은 왜 친일의 길로 들어섰던 것일까? 그 행적에 대해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친일 청산, 그것은 그들의 친일 행적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그런 행위에 이르게 된 경로를 정확히 성찰하는 데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할 듯하다.

본고에서는 소위 ‘친일파’로 지탄받는 그들이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부터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길로 접어들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춘원 이광수의 친일로의 ‘전향’을 대상으로 그 전후의 상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아래 인용한 춘원의 시는 이러한 작업의 출발점에서 참조해도 좋을 만한 작품으로 보인다.

聖壽无疆하옵시고 八紘一字하옵소서

亞洲風雲이 하로 바빠 건기와서

蒼生이 聖恩에 젖어 共存共榮하옵소서

婆婆衆生이 貪瞋癡를 滅하옵고

慈悲로 六度뒀아 惡途輪廻 끊은 後에

모조리 淨土福樂이 그칠 줄을 모르소서

半島二千萬이 목은 때를 잊사옵고

淸淨한 새몸되어 큰 뜻 큰 힘 연사와서

이 나라 빛내옵소서 子孫昌盛하옵소서

(「祝願」 전문, 『춘원시가집』, 1940)<sup>1)</sup>

1) 춘원 이광수가 동우회사건 재판 중인 1940년 2월 박문서관에서 간행한 『춘원시가집』의 제1권 첫머리에 이 시 「축원」이 실려 있다. 작품의 창작일은 작품 말미에 기록된 “소화십사년 사월 북한산록에서”라는 글귀로 보아, 1939년 4월로 볼 수 있다. 이광수, 『춘원시가집』, 박문서관, 1940 참조.

위 작품은 춘원 이광수가 1939년 4월에 쓴 시조로, 1연의 내용은 일제가 내세우는 ‘대동아공영’과 천황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이 작품을 친일시로 분류하게 한다. 하지만 바로 2연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중생이 왕생극락하기를 바라는 불교적 기원을 담고 있어 성격이 약간 다르고, 3연은 우리 민족(‘반도이천만’)이 새롭게 갱생하여 나라가 빛나고 자손이 창성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민족의 미래를 축원한 애국시의 면모 또한 갖고 있다. 즉 1연은 친일, 2연은 종교적 기원, 3연은 민족에의 축원을 노래한, 조금씩 성격이 다른 세 가지 내용이 한 자리에 모여있는 기이한 모습의 작품인데, 이것을 춘원은 친일로의 전향 초기에 자신의 첫 번째 개인시집 제일 앞에 내세운 것이다.

이광수는 왜 이런 작품을 썼으며, 자신의 영혼의 소리를 담았다고 스스로 얘기한 시집의 첫머리에 세워두었던 것일까?<sup>2)</sup> ‘내선일체’를 표나게 내세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까? 하지만 이 작품은 오히려 그러한 뜻만이 아니라 그 언표 자체가 갖고 있는 작위성에 주목하게 하는 효과 또한 일으킬 수도 있어 보인다. 그것은 그의 ‘혼’을 짓누르고 있는 이념들의 무게를 그대로 현시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기 때문이다.

춘원 자신이 의도했든 아니든 이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미묘한 어색함은 종교적 이념을 매개로 한민족을 일본 천황에 복속시키려는 논리 자체의 억지스러움과 관련된 것이기도 한다. 그는 왜 이런 어색하고 작위적인 모습의 작품을 맨앞에 내세우고 그 자신의 속마음을 펼쳐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이제 아래 본문에서는 춘원 이광수가 이러한 지점(친일)에 이르게 된 배경과 그 전후의 경로를 짚어보고자 한다.

2) 이광수는 훗날 수필집 『돌벼개』(1948)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수년 전에 『춘원시가집』을 내인 일이 있었거니와 그 속에 있는 수십 편의 시조가, 『돌벼개』 외에는 나 자신의 속을 말한 것이었다. …(중략)… 이 수필과 저 시조만은 일점일획이 다 내 혼의 사진이다.” 이광수, 「서문」, 『돌벼개』, 생활사, 1948, 12-13면.

## 2. 『윤치호 일기』에 대하여

본고는 춘원 이광수의 친일의 계기나 이유, 그리고 그 정황 등을 이해하고 재구해보기 위해 『윤치호 일기』를 살펴보는 방식을 택했다. 방대한 그 일기 중에서 이광수에 대해 기록한 부분, 그리고 춘원이 추종했던 안창호가 등장하는 부분 등을 추출하여 검토함으로써 이광수가 처해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윤치호 일기』는 佐翁 윤치호(1865-1945)가 1883년부터 1943년까지 61년간 써 온, 史草를 방불케 하는 대기록물이다. 불행히 몇몇 시기는 기록이 결락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 일기는 우리 역사의 중요한 시기(갑신정변의 전야부터 식민지 말기까지)를 관통하여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대 지식인 그룹의 핵심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規模의 人 윤치호’<sup>3)</sup>의 시선을 통해 우리 근대사의 중요한 사건에 대한 통찰과 주요 인물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숨겨진 정보들, 그리고 우리 민족 현실에 대한 비판과 애정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식민지 시대 연구의 중요 자료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물론 윤치호는 친일파이고, 그 ‘일기’ 형식 또한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서술의 혐의를 받을 수 있기에 본고의 작업이 갖는 한계 또한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반대로, 친일파의 속 마음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글이기에, 윤치호와 비슷한 길을 갔던 춘원 이광수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이광수, 「規模의 人 尹致昊氏」, 『동광』, 1927.2; 이광수, 『이광수 전집(8)』, 삼중당, 1971, 496면. 이광수는 수양동우회의 기관지인 『동광』에 발표한 이 글을 통해 윤치호와와의 인연과 그의 인물됨을 자세히 밝힌 바 있다. 흥미롭게도 윤치호의 일기에 이광수에 대한 기록이 처음 나타나는 것도 이 글이 발표된 직후인 1927.3.20부터이다. 이광수가 밝힌 바와 같이 윤치호는 진정 “조선문으로 간행되는 각종 정기 간행물과 신간서를 통독한다고 한다”는 것이 사실이였으며, “그는 有爲한 후배를 극히 사랑하되 존경하는 정도로 사랑한다고 한다.”(이상 『이광수 전집』 8:498)는 것도 사실이었던 것이다. 윤치호의 1927년 3월 20일자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간결하지만 대상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문장이 기록되어 있다. “이광수 씨를 방문하였다. 이광수 씨 건강이 조금 나아졌다.”

또한 윤치호는 친일파의 거두이기에 오히려 총독이나 기타 총독부 관리들과 접촉하는 일이 누구보다 잦았고, 민족운동 진영에서도 여전히 큰 존재감을 갖고 있는 인물이어서 당시 국내외의 정세나 판국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의 일기는 사적인 부분도 없지 않지만, 거의 매일 기록된 그 기록에 근거하여 당대 인물들의 행적을 정확하게 정리해 볼 수 있으며, 그런 관계망 속에서 이광수가 처한 상황과 문제 의식을 좀 더 객관적으로 조망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윤치호와 이광수, 이 두 사람은 소위 ‘준비론’으로 이야기되는 노선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sup>4)</sup> 이러한 측면에서도 윤치호의 일기에 담긴 사유와 다양한 정보들은, 이광수의 생각과 선택의 근거와 그 동기 등을 추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참조점이 될 수 있다.

본고에서 활용한 『윤치호 일기』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2014-2016에 번역 출간한 『(국역) 윤치호 영문 일기(1-10)』<sup>5)</sup>와 김상태 번역의 『윤치호 일기』(2001)<sup>6)</sup>이다. 이 자료집들에 기록된 안창호<sup>7)</sup>와 이광수의 관련 부분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4) “윤치호의 기본 입장과 가장 유사한 사상적 조류는 바로 안창호, 이광수 등의 비정치적 실력양성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민족성 개조론’이었다.” 김상태 편역, 『윤치호 일기(1916-1943)-한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통해 본 식민지시기』, 역사비평사, 2001, 38면.

5) 박정신 외역, 『(국역) 윤치호 영문 일기(1-10)』, 국사편찬위원회, 2014-2016. 총 10권의 이 자료집은 매권 번역자나 출간년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냥 ‘국사편찬위원회’ 판본으로 부르기로 하고, 논의의 편의를 위해 본고에서는 이 자료집에서의 인용은 (권수:면수) 형식으로 간략히 표기하기로 한다.

6) 김상태 편역, 앞의 책. 이 책은 방대한 윤치호의 일기 중 식민지 시기 부분에서 발췌 번역하여 한 권으로 만든 것으로, 번역도 비교적 잘 되어 있고, 상세한 각주가 붙어있어 연구에 유용하고 편하다. 윤치호의 일기는 필요시 이 자료집에서도 인용했다.

7) 이광수의 준비론 사상의 뿌리가 안창호에 닿아 있다고 보이기에 그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기원이 도산에게만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춘원이 도산을 먼 거리에서 본 것은 일본 유학 시절이었고,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주장에 동의하고 따라 나선 것은 그의 나이 28세인 1919년 5월 상해 임정 시절이었다. 그의 유소년, 청년기까지의 체험에서 준비론의 기원을 찾을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

## 3. 『윤치호 일기』에 나타난 민족운동 내부의 분열과 이광수의 모습

## 1) ‘서북파’와 ‘기호파’의 대립

『윤치호 일기』에서 안창호와 이광수 이름이 나오는 대목을 뽑아서 보다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테마가 하나 있다. 바로 ‘서북파와 기호파’의 갈등이다.<sup>8)</sup> 일기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기에 그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한다.

<1931.1.8 일기>

“와이, 미국, 시베리아, 만주, 상하이 등 사실상 조선인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조선인을 두 개의 적대적인 진영으로 갈라놓는 두 파벌, 즉 서북파와 기호파가 이제는 서울에서 더욱더 적대적인 양상을 연출하고 있다. 서북파 지도자인 안창호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먼저 기호 사람들을 제거하고 난 후에 독립해야 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다. 나는 항상 지역갈등과 파벌투쟁으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애써왔다. 그런데도 신홍우 군, 유억겸 군과 함께 기호파 지도자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나는 서북파 인사 중 일부, 예를 들어 작가인 이광수 군을 매우 좋아한다. 신 군과 유 군은 그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데도 말이다.”(8:513)

위에 인용한 일기에서 윤치호는 서북파의 지도자인 안창호와 관련된 ‘믿을 수 없는 소문’을 기록하고 있다. 소문의 내용인 즉, 일제로부터 독립하기 전에 기호파를 제거해야 한다고 도산이 말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풍문과 더불어 일기에는 신홍우나 유억겸 같은 기호파 인사들이 이광수 등 서북파 인사들의 앞길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일화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느 것이 먼저였는지(누가 잘못했고,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거짓이었는지) 역사적 사실과 인간적 진실을 밝히

8) 윤치호는 이에 대해 1931.4.17 일기(8:551)에서, “파벌이라는 것이야말로 민족 최악의 천벌”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기는 쉽지 않겠지만 할 수 있는 한 규명의 노력을 계속 해야 할 것인 바,<sup>9)</sup> 본고에서는 그 일환으로 윤치호의 기록에 나온 내용만이라도 먼저 따라가면서 그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1931.4.19 일기>

“신홍우나 유억겸 같은 지도자들은 평양 인사들이 기호인을 싫어하는 것 못지않게 서북인을 싫어한다. 얼마 전 이화여전 학생들이 문학을 주제로 한 강연에 저명한 소설가 이광수를 초빙했다. 팸플릿이 인쇄되었다. 그런데 예정시간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유억겸이 이화여전의 미국인 교장에게 이광수의 강연을 금지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광수가 전처와 이혼했다는 사실이 명분이었다. 이광수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음에 틀림없다. 얼마 전 이화여전은 내 사위의 형인 정두현 씨를 초빙해 일부 교과목을 맡기려고 했다. 신홍우가 그런 특수 과목은 여교사가 가르쳐야 한다고 제안하여 아주 교묘하게 그 계획을 취소시켰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는 두 파벌의 심리를 충분히 이해한다. 그들에게는 상대방을 가혹하게 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에게서 지역적 적대감이라는 사치를 부릴 만한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8:552)

유억겸(유길준의 아들)은 왜 그토록 이광수를 싫어하고 그의 앞길을 막으려고 했던 것일까? 그 이유를 분명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의 이러한 적대적 행동에 대한 기록은 이 시기만이 아니라 적어도 1920년대 중반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편지 형식의 글 「도산 안창호 선생에게」(『개벽』, 1925.8.)에서 이광수는 유억겸과의 관계를 걱정하는 도산에게 ‘사랑하기 공부’, ‘성내지 않기 공부’를 다시 계속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었지만, 위에서 살핀 윤치호의 1931년도 일기를

9) 필자가 보기에 상해 임시정부는 ‘서북파’/‘기호파’의 싸움과 ‘완진/급진’ 등의 노선 갈등 등이 중첩된 형국에서 1차 파탄을 맞았다. 반병률, 『통합임시정부와 안창호, 이동휘, 이승만-삼각정부의 세 지도자』, 신서원, 2019, 37-8면, 315-7면 등 참조.



보자면, 그들의 관계가 그 이후 좋아진 것 같지는 않은 것이다.<sup>10)</sup>

서북파와 기호파의 대립, 갈등은 뿌리가 깊은 것이어서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sup>11)</sup> 가까이로는 임시정부 초기부터도 이러한 문제가 이념이나 노선 갈등의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통합 입정 출범 초기에 이동휘와 안창호는 동지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정국을 주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략)… 이동휘와 안창호는 이승만과 이동녕, 신규식, 이시영 등 기호파 총장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다.”<sup>12)</sup>**

위의 인용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대로 임시정부 내의 주도권 다툼에도 지역색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식민지 시대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좌절과 절망에 빠트렸던 이러한 파당 정치와 그에 이어진 온갖 비방과 공격은 이광수, 안창호 등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었고, 그들은 이러한 관계망 속에서 서로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sup>13)</sup>

이러한 차별과 파당 정치의 악순환은 개인과 공동체 내부의 역량을 갉아먹는

10) 그리고 춘원의 이 무렵 저작품 「조선을 버리자」(1925.3)나 “나는 근래에 웬일인지 별판을 그리워하게 되었소. 반년 동안이나 앓으면서….”(「가을의 들」, 1925.9.18. 창작)라는 수필 등에서 느낄 수 있는 ‘텅빈 별판같은’ 허망함 등은 민족운동 내부의 이러한 대립·갈등과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1) 장유승은 서북인들에 대한 차별의 역사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인식의 범주로 구별하여 고찰하고 있어 흥미롭다. 정체성 형성에는 ‘사실’ 뿐만 아니라 ‘담론’의 작용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장유승, 「조선후기 서북지역 문인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0. 참조.

12) 반병률, 앞의 책, 36면.

13) 장유승은 정주아의 『서북문학과 로컬리티』(소명출판, 2014)에 대한 서평에서 “소외된 지역 사적 경험이 탈계급적 탈지역적 공동체를 향한 이상으로 승화”될 수도 있지만, “지역성은 필연적으로 배타성을 동반하기 마련”이라는 점, 즉 “‘로컬리티’의 역기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장유승, 「(서평) 서북 지역 연구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다」, 『민족문학사연구』 56,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4.12. 참조. 여기서 말하는 ‘배타성’이란 해당 지역인들이 스스로 만든 측면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그 지역(인)에 대해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본 측면도 있을 것이다.

‘天刑’과도 같은 질병이었다. 윤치호가 이 문제를 자신의 일기에서 거듭하여 거론하고 있었던 이유 또한 여기에 있을 것이다.<sup>14)</sup>

<1932.7.15 일기>

“이광수 군 요청으로 4시 30분쯤 안씨를 면회했다. 그건 그렇고, 김활란 양이 내가 안씨 석방을 위해 당국자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에 분개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승만 계(\*기호와 인용자 주)와 서북파를 이끌고 있는 안창호계 간의 불쌍사나 윤 다툼이 마침내 서울까지 다다른 것 같다. 신흥우 군, 유억겸 군, 김활란 양 등은 내가 안창호, 이광수 같은 서북파 지도자들과 진솔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 데 대해 기분이 상한 것 같다.”(김상태 편역, 305면)

1932년 4월 29일 도산 안창호는 윤봉길 의거 당일 상해에서 체포되었고, 6월 국내로 압송되어 있는 상황이다. 위의 일기에는 이광수가 안창호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윤치호 또한 이들을 위해 나서보지만 신흥우, 유억겸, 김활란 등의 젊은 기호와 지도자들의 반발에 부딪친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를 보자면 이들이야말로 일본보다 국내 경쟁자(서북파) 박멸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광수는 이러한 특정 지역 중심주의, 파당 싸움으로 인해 민족을 위한 인재들이 스러져 가고 있음을 비판한 바 있다. 「難得三寶-민족과 인재」(『동광』, 1932.8.)는 그 대표적인 글이라 할 수 있다.

“전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개인들이 많은 곳, 또는 때에는 인제는 존경과 도움을

14) 독립운동계의 대부 박은식 선생 또한 유언으로, 파당 싸움을 중지하고 단결해서 독립을 쟁취하라는 말을 남겼다. 이광수는 소년 시절 박은식의 논설을 애독한 바 있고, 그와 함께 임정의 사료편찬 일을 하게 되었으며, 그를 이어서 『독립신문』 사장 일을 맡기도 했다. 누구보다 가까이서 박은식 선생을 모시고 함께 일했던 이광수이기에 그는 박은식 선생의 유언을 깊이 새겨들고 있었을 것이다. 1925년 11월 5일 동아일보에 발표한 그의 시 「哭 白巖先生」은 춘원 아니면 쓸 수 없는 애통한 弔詩이다.

받지마는 그와 반대로 어느 단체의 개인들이 저만 알고 우리를 모르는 경우에는 인제는 시기를 받고 모해를 받는 것이다. 조선근세사와 금일의 불쾌한 인재 학대의 현상은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니, 그 최적례로는 이순신을 들 것이다. 인재란 민족의 산물이라고 하거니와, 그것은 진리다.”<sup>15)</sup>

위의 글에는 민족을 위해 일 할 인재를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들어 있다. 글이 발표된 시기를 봤을 때 이 말은 도산을 구명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이는 춘원 자신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자기와 관련된 말이기도 할 것이다. 그 민족의 크기만큼, 그 민족이 알아주고 키워주는 만큼 인재들이 클 수 있다는 것 즉, 큰 인재를 얻으려면 그 단체의 구성원들이 각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6)</sup>

춘원은 이러한 파벌 싸움과 그로 인한 고통을 겪으며, 좀 더 본질적인 ‘민족 개조’를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닐까? 즉, ‘실력 양성’이나 ‘인격 수양’ 정도가 아닌, ‘민족성’ 자체, 민족 개개인의 ‘영혼’까지 정화하고 새롭게 만드는 본질적 개조 작업을 고민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가 점차 ‘종교’의 세계로 들어서고 있었던 것 또한 이와 관련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시기 도산 안창호는 감옥에서 가족들에게 보낸 1933년 4월 2일자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내가 거월 28일에(\*1933.3.28-인용자 주) 이 대전형무소로 이전하였습니다. 당일 상오 반일간에 온화한 춘풍을 벗하여 근 30년간 그림던 남조선에 여행하는 동안에 쾌감 비감이 병발하였습니다. …(중략)… 조선상세지도 한권 사 보내시오. 금강산유기 백두산유기도 구송하소서.”<sup>17)</sup>

15) 이광수, 「難得 三寶--민족과 인재」, 『동광』, 1932.8. 이광수 전집 8:355.

16) 이와 관련하여 함석헌의 다음의 말 또한 참조할 것.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인물 대접할 줄을 모른다. 그것이 우리의 국민적 성격의 큰 결함이다.” 함석헌, 「육당춘원의 밤은 가고」, 『신태양』, 1958.2. 조용만, 『육당 최남선』, 삼중당, 1964, 480면에서 재인용.

17) 이명화, 「도산 안창호의 서대문형무소 투옥과 수감 생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6, 독립

오랜 망명생활 끝에 포로의 신세로 남녘 땅을 여행(?)한 도산의 소회가 잘 드러난 편지라 할 수 있다. 그 무렵 안창호가 가족들에게 차입해 달라고 한 것은 ‘조선상세지도’와 춘원(『금강산유기』)과 육당(『금강예찬』, 『백두산근참기』)의 기행문이었다. 상상을 통해서라도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느껴보고자 함이기도 하겠지만 춘원과 육당의 기행문에 담긴 ‘조선혼’과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는 우리 산하에 새겨진 ‘조선혼’을 누구보다 잘 형상화한 후배들의 글을 통해, 이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을 성찰하고, 그러한 길을 함께 걸어온 동지들과 마음속에서나마 함께하고 싶었을 것이다.

<1933.10.2~8 일기>

“얼마 전 동아일보 편집장을 그만두고 조선일보사 부사장이 된 이광수씨는 김성수씨와 송진우씨에게 배운망덕의 혐의를 받고 있다. …(중략)… 조선일보는 안창호씨를 위한 직장으로 준비되고 있었다. 보도에 의하면, 부유한 反기호파인 안창호가 일본인들은 최근에 와서 적이 되었지만 기호지역의 조선인들은 500년 동안 서북인들의 적이었기 때문에 기호와 즉 경기충청파는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나는 안씨가 이러한 진술을 했다고 거의 믿을 수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호인들은 그가 그러한 말은 물론이거니와 더 심한 일도 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신흥우와 여운형은 나에게 서북파의 파렴치한 음모와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기호인 지도층들로 구성된 당을 결성하자고 제안하였다. …(중략)… 우리 기호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중략)… 일본인들에게 조선인들의 파벌싸움을 이용할 기회를 주지 말자.”(9:212-5)

길게 인용한 위의 일기에서 윤치호는 조선일보가 서북파의 온상이 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이광수가 동아일보를 떠나 조선일보로 옮겨간 것(1933.8.28)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응할 조직을 만들자는 신흥우 등

기호와 지도자들의 제안에 대해서는 거부의 뜻을 밝히고 있다. 조선인들끼리 분열하는 모습을 일본인들에게 보여서 이용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위의 인용문을 통해 이광수가 조선일보로 옮긴 것과 관련하여 여러 안 좋은 소문이 당시에 돌고 있었다는 것, 안창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온 것이지만, 그것에 더하여 그를 위한 직장으로 조선일보에 자리를 마련하느라 그런 사단들이 벌어진 것이라는 의혹이 덧붙여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호와 인사들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기에 따르면, 윤치호는 그러한 싸움과는 거리를 두고, 더 큰 일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다.<sup>18)</sup>

“안창호는 대전형무소에서 2년 6개월간 복역하고 1935년 2월 10일 가출옥했다. …(중략)… 만찬 후 응접실에서 환담을 나누다가 안창호는 자신의 포로신세를 생각하다가 지역감정문제에 충격을 받아 <우리 민족은 이렇게 불쌍한 지경에 있는데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서로 당파 싸움만 하고 있으니…> 말을 맺지 못하고 흐느껴 울었다.”<sup>19)</sup>

위의 인용문에는 안창호가 1935년 2월 가출옥할 당시의 일화가 실려 있다.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 제일 먼저 문제삼은 것이 지역감정, 당파 싸움이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런 지역감정 문제를 윤치호-안창호는 만날 때마다 계속 거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채롭기까지 하다. 그들 또한 바로 이 문제가 민족운동의 내부 역량을 갉아먹고 좌절시키는 암적 요소라고

18) 하지만 윤치호 또한 안창호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듯하다. “서북파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 같다. 모든 조선인이 폭풍우가 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한 배를 타고 있는데, 안창호 같은 인사들이 어떻게 이 하잘 것 없는 분파정신과 증오심을 고취할 수 있는 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1931.4.17 일기 (8:552). 힘을 합쳐야 한다는 당위를 부르짖고 있으면서도, 들려오는 소문이나 주변사람들의 충동으로 인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의심을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19) 김원모, 『영마루의 구름-춘원 이광수의 친일과 민족보존론』, 단국대학교출판부, 2009, 744면.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1935.3.24 일기>

“오후에 중앙호텔로 가서 안창호를 방문했다. 처음으로 그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가 신랄한 반남한 분파주의자라는 취지로 그를 향한 비난에 대해 논박했다. 만약 그의 설명이 모두 사실이라면 안창호를 버린 사람은 바로 이승만 박사였으며 안창호가 이승만 박사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안창호는 매우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9:469)

바로 앞에서 살폈듯이 1935년 2월 가출옥했을 때 안창호가 제일 먼저 문제삼은 것이 ‘지역감정’ 문제였고, 1935년 3월 윤치호가 만나러 갔을 때 안창호가 힘주어 논박하고자 한 것 또한 자신에 대한 ‘반남한 분파주의자’라고 하는 비난이었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할까?

본고에서는 다만 안창호를 둘러싼 지역 갈등이 벌어지던 와중에 이광수 또한 다양한 공격을 받아 왔었고, 1933년 8월의 조선일보로의 이직을 빌미로 하여 그 공격이 다시 활발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의 전향은 어쩌면 수양동우회 사건(1937.6)과 안창호의 사망(1938.3)에 이어지는 공식적 ‘전향’ 시기 이전에, 이러한 분란을 통과하면서 마음 속에서 이미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천형’과도 같은 이 ‘파벌싸움’을 벗어나는 길이 만약 존재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길이라 하더라도 그는 그 길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을까?

과연 문제는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어디에서부터 잘못이 시작된 것일까? 이승만(기호파)이 문제였던가, 아니면 안창호(서북파)가 문제였던가? 다만 확실한 것은 당시에 민족을 지도하던 인물들이 서로 협력하여 단합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문제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과恨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938.2.7 일기>

“오후 늦게는 얼음장 같은 북서풍이 몰고 온 눈송이들이 흩날리면서 지독한 추위가 찾아왔다. 대학병원에 입원 중인 안창호를 방문했다. 겨우 해골만 남은 모습이다. 그래도 서로 얼굴을 보니 반가웠다.”(10:18)

<1938.3.10 일기>

“지난 밤에 안창호가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동시에 여섯 가지 병을 앓고 있어서 회복될 기미가 거의 없었다. 그를 위해서는 차라리 죽는 게 더 편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친구를 잃었다는 사실에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10:28)

1937년 11월 10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찍은 사진 속 안창호의 모습<sup>20)</sup>은 육체적 고통 뿐 아니라 영혼의 슬픔을 느끼게 한다. 그 겨울을 그는 넘기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모든 고통과 슬픔이 끝난 것도 아니었다. 살아 있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은 여전히 현실 속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 동우회 재판이 끝난 것은 그로부터도 3년 8개월이 지나서였다.

## 2)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

윤치호는 일기 곳곳에서 당시의 현실 상황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은 안창호나 이광수의 ‘준비론’, 즉 ‘민족 개조론’과 ‘실력양성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 『윤치호 일기』에 나타난 그의 이러한 ‘준비론’자로서의 면모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1921.9.27 일기>

“일본은 누군가에게 강요를 받지 않는 한 절대로 조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

20) 안병욱 외, 『안창호평전』, 청포도, 2007, 책 서두의 사진 참조

그리고 워싱턴회의에서 누군가가 일본에게 조선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다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조선인들의 그릇된 믿음 중 하나는 조선인들에게 천벌을 안겨주었던 믿음은 정치를 통해서만 조국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김상태 편역, 235면)

위의 일기는 1921년 11월부터 개최되었던 ‘워싱턴회의’(태평양회의)를 앞두고 쓴 일기인데, 그 회의를 기회로 삼아 독립을 이루려는 움직임들에 대해 윤치호는, 현실을 모르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것은 3.1운동 직전 ‘파리강화회의’에 참가하고자 하는 세력에 대해 그가 보인 태도와 동일한 것으로, 이로 인해 그는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태도는 지속적이고 일관되고 있다는 점을 위의 일기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정치’보다는 ‘실력양성’이 먼저라는 ‘준비론’자로서의 윤치호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이광수 또한 이 “태평양회의가 열리는 날에” 「민족개조론」을 쓰고 있었다.<sup>21)</sup> 독립을 위해서는 외부의 힘에 기댈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문제를 고치고(인격 개조) 실력을 양성하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함을 논하고 그 방략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준비론(인격수양과 실력양성론)의 논리를 설파한 「민족개조론」의 작성(1921.11.)과 발표(1922.5.),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조직으로서의 수양동맹회의 결성(1922.2.) 등 이광수는 상해에서 국내로 돌아온 이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수행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잠시 그의 국내 복귀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소문 등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춘원에 대한 비판과 공격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바로 이 부분과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sup>22)</sup>

21) 이광수, 「민족개조론」, 『개벽』, 1922.5, 『이광수 전집』(10:116). 이 글은 춘원이 그 글 서두에 밝힌 바대로 “신유(\*1921년-인용자 주) 11월 11일 내평양회의가 열리는 날에” 쓴 것이다.

22) 이광수에 대한 비판은 시기를 더 거슬러 올라가 살펴볼 수도 있으나 사회주의 쪽에서의 공격은 그의 국내 복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이는 임정에서의 급진/완진 논쟁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일로 이해된다.



먼저, 이광수의 국내 복귀는 허영숙과의 연애 때문으로 비판 받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 때문만이라기보다는 민족운동을 해외에서보다는 국내에서 하는 것이 필요해진 상황 변화에 따른 선택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해석이 아닐까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20년 10월부터 일제에 의해 간도 참변이 자행되고, 상해 임시정부는 급진론과 완진론(준비론) 사이의 논쟁에 빠져든다. 급기야 1921년 1월 24일 이동휘가 임정에서 탈퇴하면서 독립운동은 위기를 맞고, “5월 11일 안창호마저 임정을 떠남으로써 통합 임정은 출범 1년 반 만에 와해의 위기에 빠지게 됐다.”<sup>23)</sup> 이렇듯 간도참변으로 만주와 중국에서의 독립운동에 큰 제약이 생긴 상황이었고, 임정 또한 여러 요인으로 유명무실해진 상황이었다는 점, 그리고 무단통치에서 문화정치로 변화된 국내 사정 등 이러한 모든 요건이 이광수로 하여금 해외 활동을 접고, 국내 활동을 하는 길을 선택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sup>24)</sup>

다음으로, 이광수의 국내 복귀는 그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안창호 등과의 논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며, 그의 지시를 따른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안창호가 그의 국내 복귀를 반대했다는 자료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기록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광수, 박현환<sup>2)</sup>인은 귀국을 앞두고 안창호로부터 국내에 홍사단 한국지부 설립지령을 받고, **박현환**이 1921년 3월에, 이광수가 4월초에 귀국했고, 동지포섭을 위해 동경에 파견됐던 **김항주**, 그리고 미주 홍사단 단무를 담당한 **김태진** 등도 서

23) 반병률, 앞의 책, 38면.

24) 이광수는 국내 복귀 직전에 발표한 장편의 논문 「간도사변과 독립운동 장래의 방침」(『독립신문』, 1920.12.18-1921.2.5. 6회 연재)에서 급진론적 투쟁방식을 비판하고, 그런 방식으로 는 경신참변과 같이 무고한 동포들(그 대부분이 비전투원인 농민들)만 희생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 독립을 위해서는 “더욱 냉정 침착하게 장래의 대혈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준비론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 글에서 도산 안창호의 말을 빌려 독립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을 회복할 능력을 가져야 하고, “군인과 준비”를 갖추고 “기회”를 기다려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사엽 편, 『(춘원 이광수 애국의 글) 독립신문』, 문학생활사, 1988, 208-232면 참조

울에서 합류했다.”<sup>25)</sup>

위의 인용문은 당시 이광수의 귀국이 개인적 연애행각 때문에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 거론된 박현환은 상해임정의 임시사료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춘원과 함께 활동하고 있었던 인물이며, 김항주와 김태진은 홍사단원들인데 이들이 춘원의 국내 복귀 후 서울에서 합류하여 수양동맹회 조직에 나섰던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국내 복귀 후 이광수가 아베 요시이에(阿部充家, 1862-1936, 無佛翁)를 통해 사이토 총독에게 건의서를 보낸 것 또한 변절로 의심받을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그의 국내 복귀 목적이 수양단체의 활동에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26)</sup> 그리고 이는 변절이라기보다는 그의 준비론 사상의 연장에서 볼 수 있는 일이며, 이광수는 이후 총독을 직접 만나 수양동맹회가 합법적 단체로 활동할 수 있게 타협을 한다.

“이광수는 1921년 12월 왜성대(倭城臺)에서 사이토 총독과의 단독회담에서 자신의 품고 있었던 사상과 경륜을 솔직히 털어놓고 민족개조론을 집필했고 수양동

25) 김원모, 앞의 책, 412면. 김원모는 여기에서 『독립운동사자료집』에 수록된 동우회 사건 재판정에서의 이광수의 발언도 함께 인용하고 있으니 참조할 것.

26) 김윤식은 이광수의 귀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아부가 재등실 총독에게 보낸 건의서(1921.4.10) 속에는 다음과 같은 이광수의 건의문 「유랑 조선청년 구제 선도의 건」이 포함되어 있다. …(중략)… 세상이 춘원의 귀국을 비난하는 것은 이처럼 석연찮은 그의 건의서가 개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2)』, 한길사, 1986, 675면. 그런데 춘원은 이미 「대구에서」(『매일신보』, 1916.9.22-23)라는 글에서 비슷한 내용의 건의를 공개적으로 식민통치자들에게 한 바 있다. 즉, 무단통치를 접고 청년들에게 교육이나 그들이 활동할 문화적 활로를 열어달라, 그렇지 않으면 갈 곳 모르는 그들이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 즉, 활로를 찾지 못한 청년들을 소비에트가 “과격파 러시아의 선전자”로 만들고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식민지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라는 내용이 후에 덧붙여진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는 국내에서의 홍사단 활동을 승인받기 위해 식민통치자들이 수용할 만한 명분을 추가, 강화한 것으로 풀이되며, 준비론자로서의 이광수의 입장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이다.

맹회라는 합법적인 결사조직을 결행한 것이다. 춘원-사이토는 상호 교묘하게 역이용한 정치적 대타합이 아닐 수 없다.”<sup>27)</sup>

춘원 이광수와 사이토 총독과의 만남, 그것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sup>28)</sup> 이루어진 것이며, 이광수 개인은 물론 홍사단 국내 지부(수양동맹회)의 활동은 이렇듯 식민 통치자들의 용인 하에 합법적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국내 복귀 후 얼마되지 않은 1921년 5월 이광수는 허영숙과 결혼하였고, 그해 8월 신희여행을 겸하여 금강산으로 갔다. 그는 이를 금강의 자연에서 ‘영혼의 세례’를 받는 ‘순례의 길’로 표현하고 있어서 주목된다.<sup>29)</sup>

“以上에 말한 것보다는 더욱 중요한 動機라 할 만한 것은 위대장엄한 자연 속에서 내 ‘靈의 세례’를 받자, 지리멸렬한 내 인격의 통일을 얻어 보자, 직접으로 天公의 계시를 들어 나의 일생의 진로를 정하자 함이외다. 나의 몸은 마치 만신창의 피부병을 가진 사람도 같고…(중략)…이것을 혹 대자연의 물세례, 불세례에 일침해 버릴 수가 없을까, 꼭 그리될 것 같다 하는 신념을 가졌읍니다. 원컨대 명철한 해

27) 김원모, 위의 책, 360면. 김원모 또한 이 부분에서 “이광수가 변절자로 귀순했다는 주장과 홍사단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귀국했다는 두 가지 설”을 소개하고 후자의 근거를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많이 참조했다.

28) “이광수라는 자의 案…(중략)… 피차 서로의 이득이라고 생각됩니다.” 1921년 11월 29일에 아베가 사이토 총독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 『재등실문서』에 있는 편지를 김원모, 앞의 책, 378면에서 재인용함.

29) 이광수는 이후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금강산을 찾는 모습을 보였다. 필자가 체크한 바로는, 1917년 오도답과여행 시에 금강산에 가려했으나 건강을 상하여 중지한 바 있고, 1921년 8월의 산행이 첫 번째인 것으로 보이며, 1923년 7-8월, 동아일보에 입사(1923.5)한 이후 새롭게 마음을 다잡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두 번째 산행. 그리고 1933년 7월말 동우회 하계 수양회를 금강산에서 개최한 듯한다(\*계획을 발표하기는 했는데 실제 그렇게 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함), 이 산행 전에 『동광』을 폐간했고 이 직후에 동아일보에서 조선일보 부사장으로 옮겼던 것이다. 하지만 1934년 4월 하순의 금강산행은 그로 하여금 세상을 등지고 중이 되어겠다는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그 중 가장 심각한 상황 속에서의 입산이었다. 그는 그 해 5월 조선일보 부사장직을 사임하고 다시 금강산 산수간을 방황하지만 가족들의 만류 등으로 마음을 잡지 못하고 결국 자하문 밖 홍지동에 산장을 짓고 이후 거기에 칩거하여 불경을 외고 시를 쓰는 생활을 한다.

안을 얻고져, 원컨대 깨끗한 思言行을 가지고져, 원컨대 사회를 위하여 내 몸을 바치는 불 같고 경건한 성의를 얻고져, 원컨대 민족의 진로를 밝히 찾고져, …(중략)… 원컨대 이 속에 一條의 清流가 어디로서나 흘러 들어오소서 하고 빌고져. 이리하여 나는 금강산 구경의 길을 떠났습니다. 巡禮의 길을 떠났습니다. 致誠의 길을 떠났습니다. 때는 一九二一, 八月”<sup>30)</sup>

위에 나와 있듯이 1921년 8월에 있었던 춘원 이광수의 금강산행은 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후 그는 총독과 만나 수양 단체의 합법적 결성을 허락받았고, 또한 그와 비슷한 시기에 「소년에게」(『개벽』, 1921. 11.-1922.3.), 「상쟁의 세계에서 상애의 세계에」(『개벽』, 발표일 미상이나 이 무렵에 썼고 검열에 걸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음), 「민족개조론」(『개벽』, 1922.5.) 등 그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중요한 글들을 집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31)</sup>

이제 다시, 1921년 9월 27일의 윤치호의 일기로 돌아가 보자. 앞서 살폈듯이 거기에서 윤치호는 정치보다는 산업과 교육 등을 통해 조국에 기여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펼치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이광수 또한 국내에 복귀하여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을 위의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윤치호와 이광수, 이 둘은 연령의 차이나 서북파나 기호파와 같은 그들이 속한 집단들 간의 대결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유와 행동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제 아래에서는 ‘정치’에 대한 준비론자로서의 경계심의 연장선에서 ‘사회주의’에 대해 대응하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1920년대 중반, 사회주의는 기존 민족운동 세력과 다양한 측면에서 충돌하고 있었다. 그 장면을 『윤치호 일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그리고 있다.

30) 이광수, 「『金剛山遊記』 動機, 『금강산유기』(1924.10) 서문. 1963년 판 『이광수전집』 19권 339면 참조.

31) 1923년 이광수는 이 3편을 묶어서 『조선의 현재와 장래』라는 제목으로 출간한다.

① <1924.7.8 일기>

“조선의 기고가들은 인간들을, 특히 조선인들을 대체로 여섯 개의 계층으로 나눌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다. 그런데 그중에서 세 계층은 무조건 나쁘고, 나머지 세 계층은 무조건 훌륭하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부자들은 모두 사악하고, 노인들은 모두 어리석으며, 남편들은 모두 아비하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런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선하고, 젊은이들은 모두 현명하며, 여성들은 모두 훌륭하다고 보는 것 같다. 이 열치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만드는 조선의 일간지들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어깨를 들먹이고, 젊은이들은 반항을 해대며, 여성들은 우쭐거린다.”(김상태 편역, 253면)

② <1924.10.25 일기>

“전혀 7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천도교당에서 고등보통학교 학생 웅변대회가 열렸다. 15명의 연사가 출전했는데, 그중 14명이 연제가 뭐든 상관없이 불세비키들이 즐겨 쓰는 용어로 유산계급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젠 웅변이란 말만 들어도 신물이 난다.”(김상태 편역, 253면)

③ <1931.1.24 일기>

“전북 남원에서 보통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허재후 군… 그는 이번엔 고향인 함북 길주, 성진을 가보고 더더욱 놀랐다고 한다. 전 주민이-특히 젊은이들이-불세비즘에 미쳐 있더라. 어린아이조차 공산주의를 입에 올리고, 심지어 강의까지 할 수 있더라. 연장자는커녕 자기 부모에 대한 공경심조차 찾아볼 수 없더라. 그래서 무분별한 보수주의가 남부를, 무분별한 공산주의가 북부를 망치고 있다. 조선인들은 무분별함의 양극단을 오가면서 스스로 자신을 망쳐가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인들은 매정하고 무자비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조선인들 생계수단을 빠른 속도로 잠식해가고 있다.”(김상태 편역, 269면)

위의 일기들에는 계급주의 사상의 유행과 그에 대한 윤치호의 비판적인 시선

을 볼 수 있다. 특히 ②에서는 윤치호가 유산계급이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환기하게 된다. 그는 당시 손꼽히는 재산가였기에 계급적으로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sup>32)</sup> 그런데 사회주의에 대한 윤치호의 비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소는 바로 이 부분과 관계가 있다. 일기에는 사회주의의 유행과 극단적인 흐름이 윤치호와 같은 유산계급을 중심으로 한 ‘타협적 민족주의’ 진영을 일제보다 더한 적으로 지목하여 그들을 고립시키고 공격함으로써 공포로 몰아넣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것은 어쩌면 민족 운동 세력의 단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했던 것이 아닐까? 서로의 존재자체를 용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결’이란 어불성설일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제국주의라는 공통의 적을 앞에 두고 계급 간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인용 일기 ③에서는 친일파로 지탄받는 윤치호 또한 어쩔 수 없는 민족주의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여기에서 민족의 삶을 끝까지 걱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파 민족주의자들의 설 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윤치호의 일기에는 사회주의의 등장 초기부터 벌어진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공격과 더불어 그로 인한 공포와 저주, 그리고 민족의 진로에 대한 고민 등이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일들이 문단에서도 벌어지고 있었고,<sup>33)</sup> 그 주요 공격 대상은 이광수였다.

이광수와 사회주의자들의 대결은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미 임시정부 시절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1920년대 중반에 ‘계급문학’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주목을 끌었다. 1925년 2월 『개벽』지의 특집 ‘계급문학시비론’에

32) 물론 윤치호가 계급주의에 반대했던 이유가 경제, 계급적인 데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5년간의 미국 유학을 통해 그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자신의 이념으로 수용하고 있었고, 이는 그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과 결합하여 당대 집단주의적인 유행으로 흥미하기 시작한 계급주의 사상에 대립했던 것이다.

33) “1932년경을 전후하여 문단 한편 귀퉁이에는 욕설 비평이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중략)…『비판』이란 잡지는 이 욕으로 판매 정책을 세웠다. 좌익 잡지라는 구호였지만 …(중략)…『비판』은 총독부 검열에 파스하는 잡지였다.” 김동인, 「문단삼십년사」, 『김동인전집』, 6:61

서 신진 박영희, 김기진 등은 계급문학을 지지하는 편이었고, 이광수, 김동인 등이 그 반대편이었는데, 이광수는 ‘계급을 초월한 문학’을 주창했고, 김동인은 민족주의 문학이든 계급주의 문학이든 모두 ‘예술’이 아닌 것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점차 중간과들마저 사회주의 쪽으로 가담하게 되는 상황으로 전개되면서<sup>34)</sup> 문단의 독보적 존재였던 이광수로서도 이에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 그의 「중용과 철저--조선이 가지고 싶은 문학」(『동아일보』, 1926.1.2.-3.)이다. 이에 대해 김윤식 교수는 그 글의 맥락과 핵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어서 참조할 만하다.

**“이광수가 사상적으로 이상을 삼는 것은 ‘무저항 혁명’ 즉 간디의 사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동광』 속간호 표지를 간디 초상화로 삼은 것도 이 뜻이다. …(중략)… 그는 영리하게도 프로문학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지는 않았다. 프로문학쪽에서 ‘이광수문학을 매장하라’(김수산, 1926)는 구호, 또는 박영희가 앞장선 『개벽』(1925.1)에서의 이광수문학 비판에 맞서지 않고 묵살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개벽지에선 이성태, 박영희가 논문을 썼다.) 그러나 절충과 양주동의 「철저와 중용」(1926)에 관해서만은 그 논쟁에 응하였다. 이광수가 「중용과 철저」(1926)을 썼을 때 이 글은 한국문학의 나아갈 바른 길을 그 나름대로 지적한 것이었다. 지금 조선은 병자와 같이 허약한 상태인 만큼 밥과 같은 문학이어야 하고 이데올로기의 자극적인 것은 감당하지 못한다는 주장이었다.”<sup>35)</sup>**

「중용과 철저」(1926.1)는 이광수가 안창호의 지시에 따라 수양동맹회와 동우

34) 사회주의의 성장에 따라 수양동우회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어나고 있었다. 조병옥, 주요한 등은 실력양성주의를 버리고 직접적 혁명운동으로 조직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광수와 갈등하기도 했다. 그들은 좌우합작 신간회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수양단체를 벗어나 정치에 뛰어들고자 했으며, ‘수양동우회’가 명칭을 ‘동우회’로 바꾼 것 또한 그러한 흐름 속에서였다. 김상태, 「1920-1930년대 동우회·홍업구락부 연구」, 『한국사론』 28,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2.12, 218-219면 참조.

35) 김윤식, 『김동인 연구』, 민음사, 1987, 350-351면.

구락부를 결합하여 ‘수양동우회’(1926.1.8)로 새롭게 출발하기 직전에 발표한 글이다. 양주동의 비판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새로이 발족한 단체의 이념을 뚜렷이 내세우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다. 아직 우리 민족이 과격한 사상을 수용할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것, 급하다고 기초적인 것을 도외시하고 극단적인 것으로만 몰려 다니기만 한다면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되고 만다는 것. 그런 시각에서 이광수는 조선인들에게 “신선한 음식과 공기와 일광” 등을 제공하여 “元氣를 補”할 수 있게 하는 “常적 문학, 正적 문학, 평범한 문학”, 즉 ‘중용’의 문학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의 사회와 문단은 이미 이러한 미미한 준비론이나 ‘중용’의 문학에 만족할 단계가 아니었다. 이광수에 대한 공격은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하여 오래 전부터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고<sup>36)</sup> 김동인은 이광수를 당대 문단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은 문인으로 손꼽은 바도 있다.<sup>37)</sup>

이렇듯 지속되어온 사회주의로부터의 비판에 이광수가 작품으로 본격 응수한 것이 1930년 1월부터 동아일보에 연재하기 시작한 『군상』 3부작(제1부 「혁명가의 아내」, 제2부 「사랑의 다각형」, 제3부 「삼봉이네 집」)이며, 이에 대해 카프측에서는 이기영이 「변절자의 아내」(『신계단』, 1933.5.)로 대응하기도 했다.

문단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진영 싸움, 공격과 반격은 ‘단결’을 구호로 내세운 민족운동가 춘원을 좌절케 했을 것이고, 더구나 ‘情’의 문학을 주장하던 문인, ‘인정’을 그리워하던 인간 춘원 이광수를 여러 차원에서 흔들리게 했을 법하다. 그의 수필과 시 등에 접철되어 나타나는 실망과 좌절, 쓸쓸함, 슬픔 등등은 그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의 맹세를 상기하면서 다시금 일어나 자신이 해야 한다고 믿는 일에 전념하기를 반복하였다.

그러나 결국 그런 그 또한 절망에 빠져 현실로부터 이탈하고, 급기야 친일로 전

36) “사회주의 계열의 잡지 ‘신생활’(1922년 6월호)에는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에 대한 반대·비판한 글(이광수 매장론)이 게재되었다.” 김원모, 앞의 책, 405면.

37) “사실 춘원은 많은 문인들에게 원해를 사고 있다. …(중략)… 춘원이 『동아일보』의 편집국장으로서 앉아서 문단의 일원으로 행동하지 않고 순전히 신문인으로 행세한 것이 그 원해의 원인이 아닐까 한다.” “조선의 문사치고 가장 욕 많이 먹은 사람은 춘원이었고 내가 그 다음으로는 가는 모양이다.” 김동인, 「문단삼십년사」, 『김동인전집(6)』 60면, 62면 참조.



향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물론 그의 친일을 지금까지 살핀 바 지역 파벌 싸움이나 사회주의와의 갈등 등 민족운동 세력 내부의 분열과 갈등 탓으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다. 거기에 무언가가 더, 그를 안팎에서 압박하고 파열시킨 그 무엇이 있었을 법하다. 그리고 그의 친일이 그 누구보다 극단적이었던 이유 또한 이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 3) ‘(수양)동우회 사건’ 전후의 몇 가지 풍경

춘원 이광수의 친일로의 전향은 통상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도 동일한 입장이지만 몇몇 장면에 좀 더 주목해 보고자 한다.

<1938.5.18 일기>

“종로경찰서는 작년(\*1937-인용자 주)에 홍사단 또는 안창호 조직(\*수양동우회-인용자 주)을 일망타진함으로써, 미심쩍지만 어쨌든 실적을 쌓았다. 부러워서 죽을려고 하던 서대문경찰서가 작금의 연회전문 타도운동(\*홍업구락부 사건-인용자 주)을 시작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벌인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때리고, 차고, 코에 물을 들이부으며 이른바 자백을 받아낸다. 그리고는 이 자백에 근거해 새로운 사람들을 체포하는데, 자기네가 생각하기에 이만하면 실적이 좋다고 여겨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한다. 이러한 테러를 견딜 수밖에 없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호소할 길이 없는 불쌍한 우리네 조선 사람들을 부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10:56)

위의 일기는 ‘수양동우회 사건’(1937.6.)과 ‘홍업구락부 사건’(1938.5.)이 벌어지던 무렵의 윤치호의 일기이다. 1936년 8월 미나미 지로(남차랑)가 조선총독으로 오면서 내세운 것이 ‘내선일체론’이었다. 대륙침략을 본격화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강력한 식민지 동화정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어 12월 12일에는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이, 26일에는 조선인 씨명변경령이 공포되었다. 광범위한 사상탄압과 민족말살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양동우회와 홍업구락부 사건이 차례로 벌어져 ‘서북파’니 ‘기호파’니 할 것 없이 관련자 모두가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중일전쟁(1937.7.)이 일어나고 난징대학살(1937-1938)이 자행되던 야만의 시절, 두 사건 관계자들로서는 전향하는 것 말고 다른 길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1938.5.24 일기>

“난 어제 오후 미나미 총독과의 면담에서, 경성기독교연합회가 출범한 만큼 **조선의 기독교인들이 ‘전국민 총력운동’에 협조할 거라고 장담했다. 미나미 총독은 지난 일은 모두 불문에 부치겠다고 강조했다.**”(김상태 편역, 384면)

위의 인용문에는 윤치호가 미나미 총독에게 ‘항복’을 선언하는 모습이 나온다. 윤치호로서는 그동안에도 협조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총독부가 요구하는대로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더욱 종속적인 상황으로 몰렸던 것이다. 홍업구락부에 속한 후배들(민족운동 지도자들)을 감옥에서 구해내기 위해서는 그로서는 머리를 굽힐 수밖에 없었다.<sup>38)</sup> 이런 상황은 수양동우회의 이광수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안창호는 이미 사망했고(1938.3) 이제 그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윤치호와 달리 이광수의 경우엔 그 자신이 직접 재판을 받는 입장이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조금 다르다. 더구나 내부적으로는, 동지들을 구하기 위해 ‘네가 십자가를 저라’라는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그 모습은 조금 복잡 미묘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서, 이광수가 친일로 전향하기 직전 일어났던 김동인과 만난 일에 대해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김동인은 「동우회와 이광수」라는 글에서 자신

38) “일제는 1938년 9월 홍업구락부사건 관련자 54명을 사상전향서를 받은 후 기소유예처분으로 석방하였다.” 김상태, 앞의 논문, 258면 참조

이 춘원에게 잘못을 저지른 바 있다고 뒤늦게 고백해놓고 있다.

“같은 동우회 형사피고인으로 보석 중에 있던 家兄 東元이 어떤 날 나를 조용히 불렀다…(중략)… 형은 나더러 잠깐 상경하여 춘원을 만나 춘원의 심경을 좀 따져 보라는 것이었다. 나는 형의 심경을 짐작하였다. …(중략)… 나이 육십, 이제 또 감옥에 들어갔다가는 반드시 죽는다. 그의 선배 동지 도산 안창호는 얼마 전에 죽어 버렸다. 동우회의-동우회 회원들의 운명은 이제 춘원 이광수의 거취에 달려 있다. 이광수가 당국에게 대하여 전향을 표명하면 혹은 용서될 수도 있겠거니와, 이광수가 버티면 동우회 4, 50명의 생명은 형무소에서 결말을 지을 밖에는 없었다. 도산 안창호 떠난 뒤의 ‘동우회’는 오직 이광수의 전향 여하로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중략)… 이것이 나의 독단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형이 내게 한 말이 이광수를 전향시키어 동우회 40여 명의 생명을 구해 달라는 뜻으로 들었다. …(중략)… <壽, 富, 貴를 일생의 복록으로 꼽는데 그대 나이 오십이니 이미 壽에 부족이 없고 …(중략)… 이제 더 ‘壽를 누리다가 욕이 혹은 더해지겠고 지금껏 쌓은 공이 헛 데로 돌아갈지도 모르겠으니, 그대의 壽를 오십으로 고정시켜서 그대의 뒤가 헛 데로 안 돌아가도록 함이 어떠냐?>고 그의 가슴 찢리는 말을 하였다. 그때 춘원은 난감한 듯이 연해 한숨만 쉬며 대답을 못하고 있었다. …(중략)… 이광수가 그때 어떤 상신서를 재판소에 내었는지는 나는 모른다. 그러나 상고심 재판까지 올라가서, 이광수는 온 책임을 자기가 뒤집어쓰고 자기는 자기의 잘못을 통절히 느낀다는 성명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이천만 동포를 진정한 천황의 적자가 되도록 하기에 여생을 바치겠노라는 서약을 하여, 5개년 간 끝던 ‘동우회’ 사건은, 모두 무죄의 판결을 받았다. 내가 그때 춘원에게 권고한 바는, 춘원이 온 ‘죄’를 홀로 쓰고 수, 부, 귀 그냥 지닌 채 자살해 버리라는 것이었다. ‘자살’이란 말을 노골적으로 꺼내지 못하여 춘원으로 하여금 내 말 뜻을 잘못 해석하여 일련탁생식의 전향을 성명케 하여, 춘원을 실질적으로 우리 민족 운동사상에서 말살케 한 것이다. …(중략)… 당년 춘원의 전향으로 무죄 석방이 된 40여 명 동우회원은 모두 해방된 내 나라에 자기네들이 바칠 충성을 강구하고 있

지만, 춘원은 오직 육십의 늙은 몸을 효자동 구석에서 그래도 붓대는 놓을 수 없어서, 외로운 심경으로 붓대를 희롱하고 있다. …(중략)… 춘원 전향의 일부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나는 지금 ‘민족 반역자 처단법’에 걸리어 있는 춘원을 보기가 민망하기 짝이 없다. 춘원이 나에게 향하여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모두 너 때문이라고 질책할지라도 나는 변명할 아무 말도 없다. …(중략)… 8.15해방 이래로 이광수는 샐이 다분히 섞인 많은 시비를 받고 지금 ‘반민법’의 처단을 고요히 기다리고 있다.”<sup>39)</sup>

전후 사정을 조금이라도 더 밝혀내기 위해 김동인이 이야기한 바 거의 대부분을 인용하였다. 사실, (수양)동우회 재판 당시에 이광수에게 했던 김동인의 요구는 도를 넘어선 것이었다. 자기 형을 살리기 위해 이광수 보고 ‘내가 대신 죽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전개된 상황을 미루어 판단해보자면, 어쩌면 그는 총독부의 뜻을 간파하고 그런 말을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sup>40)</sup> 즉 식민통치자들이 수양동우회 사건을 일으킨 것은 이광수를 훼손시키기 위한 공작이었다는 것. 적어도 김동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그 무렵의 기이한 행동들<sup>41)</sup>을 떠올려보면 수긍할 수 있는 일일 듯하다. 즉 문단에서 자신이 이광수 다음 가는 자리에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그였기에, 자연스럽게 이광수 다음 타겟이 자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렇게 보아야, 1938년 말경 그가 자진해서 총독부를 찾아가 친일 사업을 제안하는 등의 기이한 행동을 했던 까닭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무튼 이광수를 민족진영으로부터 떼어내어 고립시키기. 훼손시켜 식민통치

39) 김동인, 「文壇三十年史」, 『김동인전집(6)』, 삼중당, 1976, 71-73면, ‘同友會와 李光洙’ 부분 참조. 이 글은 1948.3.~1949.8.에 「문단 삼십년의 자취」라는 제목으로 『신천지』에 발표되었다.

40) 정주아는 김동인이 “냉소적 현실 감각을 지닌 인물”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주아, 「한국 근대 서북문인의 로컬리티와 보편지향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2, 75면. 이런 시각에서, 수양동우회 사건의 목표가 춘원이었음을 김동인이 간파하고 있었으리라 추론해 볼 수 있다.

41) 김윤식, 『김동인연구』, 민음사, 1987, 411면 참조. “김동인이 상식을 초월한 해피하기 이를 데없는 행동을 취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1938년 말이었다.”

에 이용하기 등이 수양동우회 사태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김동인은 보았던 것이며, 그렇다면 김동인이 이광수에게 자살을 권한 것은 어찌보면 이광수의 명예와 그의 영혼만은 살리고자 하는 나름의 충고의 말이었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sup>42)</sup>

하지만 이광수는 ‘삶’에의 애착을 버릴 수 없었다.<sup>43)</sup>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동지들의 목숨을 끝까지 살아서 지키고도 싶었으리라. 아무튼 이로 인해 그는 변절자, 친일파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면서 자신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안고 남은 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

이광수의 전향이 동우회 동지를 살리기 위함이었음은 앞의 김동인의 증언으로 충분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

42) 김동인은 이광수에 대해 누구보다도 강렬한 애증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춘원연구」는 그래서 문제적이다. 그 두 사람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주요한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고 있다. “「춘원연구」를 읽는 것은 춘원을 아는데 보다는 동인을 아는데 필요하다” “최고의 영예를 춘원에게 주면서도 그 작품 개평에서 보면 결국 하나도 잘 되었다고 논단한 것은 없다. …(중략)… 작품마다 그 결함을 지적하고 …(중략)… 동인의 인간적 성격을 여실히 노출시켰다는데 흥미가 진진하다.” 주요한, 「東仁연구」, 『주요한 문집 새벽(1)』, 요한기념사업회, 1982, 751-754면 참조 또한 본고에서는 김동인의 「춘원연구」가 씌어진 시점 또한 주목하고 있다. 그것이 발표되기 시작한 1934년 7월경은 춘원이 조선일보사를 사임하고 속세를 떠나려한 1934년 5월 직후라는 것, 그리고 1935.4에 춘원이 다시 조선일보에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재를 중단(1935.9)했고, 연재를 재개한 1938년 1월은 춘원이 동우회사건으로 갇혔다가 병보석으로 병원에 입원해있을 때였으니 김동인은 이광수가 언론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마다 「춘원연구」를 발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종 연재가 끝나는 시점(『삼천리』, 1939.6)은 춘원이 친일의 행보를 이미 내딛은 후라 사회적으로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신세가 되어 더 이상 비판할 필요가 없이 되었을 때라는 사실이다. 1939.6.이면 이광수가 홍지동산장을 팔고 본격적으로 친일로 나아가는 시점인 것이다. 동인은 춘원을 죽이고 싶었을까, 살리고 싶었던 것일까? 이광수 또한 동인의 이런 마음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데도 그의 전향의 한 단서가 놓여 있을 것이다. 어떤 ‘신앙’의 힘이 아니고는 뚫고 갈 수 없는 벽이 여러 방면에서 그를 옥죄어오고 있었다.

43) 김동인은 이광수와와의 이 만남이 있는 지 1년여가 지난 시점에 이미 이 일을 다룬 글을 발표한 바 있다. 「춘원과 <사랑>」(『박문』, 1939.12)이 그것인데, 해방 이후에 발표한 앞서의 글(「문단삼십년사」)과 비교할 필요도 있겠지만, 우선 여기에서는 “<그래도 아직 죽기는 싫 거던>하고는 적적히 웃던 춘원.”이라든가 “그때 내가 본바에 의지하건대 생의 집착이 아무리하여도 승한 편이었다.”라는 구절 등을 통해 생에 집착하는 춘원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만 지적해놓는다. 『김동인전집(6)』, 618면 참조

다. 수양동우회 사건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5년 가까운 세월을 끌었다는 점이다. 이광수가 동우회 사건으로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것이 1937.6.7이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1939.12.8.), 2심에서는 5년 징역 판결을 받았으며(1940.8.21.), 최종심에서 전원 무죄로 결정됨으로써(1941.11.17.), 4년 5개월 넘게 끌고 나서야 동우회사건은 비로소 종결을 맞게 된다. 그 긴 시간 동안 춘원은 자신과 동지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친일 행각을 이어가야만 했다.

사실(수양)동우회는 비밀결사도 아니었고,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합법 단체로 활동하고 있었다. 춘원이 변절자라는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국내로 복귀하여 총독과 담판을 벌여 만들어낸 홍사단 국내지부였음은 앞서 살핀 바 있다. 윤치호의 일기(1938.5.18.)를 참조하자면(그는 ‘미ષ쩍은 승리’라는 말을 썼다.) 경찰이 느닷없이 이런 일을 벌인 이유가 석연치 않은 것이다. 그리고 최종심까지 재판을 오래도록 끌고 간 이유 또한 그러하다.

윤치호가 총독에게 협조를 약속한 것과 같이 이광수 또한 전향을 선언했지만<sup>44)</sup> 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2심, 3심까지 가면서 춘원은 자신의 전향을 행동으로 증명해야만 했다. 보석 상태에서 그는 강연이나 회의에 나가 친일 발언을 했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창씨개명을 했다(1940.2.11). 심지어는 “피와 살과 뼈가 일본인이 되어 버려야 한다”<sup>45)</sup>는 글을 쓰는 등 더할 수 없는 수준까지 극단적 친일 언행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김동인이 권했던 ‘자살’보다 결코 나은 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그 길을 선택했고 이후 이어진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야 했다.

일제는 춘원 이광수를 민족 진영으로부터 떼어내려 했고, 그 일은 성공한 듯하다. 그는 친일 행각을 벌이는 한편으로 자신의 상처받은 영혼을 의탁할 곳을 찾아야 했다. 그가 이 시기 시를 쓰고, 관음보살을 찾은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그리고

44) “1938년 11월 3일 보석되어 출소한 이광수와 주요한을 추동하여 일제는 사상전향회를 열게 하였다.” 이명화, 앞의 책, 211면.

45) 이광수, 「심적 신체제와 조선문화의 진로」, 『매일신보』, 1940.9.4-12, 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전집 2』, 평민사, 1995, 91-112면. 이 글은 1940년 8월 21일 2심에서 5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쓴 글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모두 폐간되었던 그 시기 『매일신보』를 통해 총8회에 걸쳐 발표한 장문의 글로 이광수의 대표적 친일 문건의 하나임.

이것이 필자가 살펴본 그의 이 시기 산문과 시에 친일, 민족, 관음보살이 한 자리에 나타나게 된 전후 사정이다.

“나는 민족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피상적인 것도 알았고, 십 수년 계속하여 왔다는 도덕적 인격개조 운동이란 것이 어떻게 무력한 것임을 깨달았소. 조선 사람을 살릴 길이 정치 운동에 있지 아니하고 도덕적 인격 개조 운동에 있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 일단의 진보가 아닐 수는 없지마는, 나 스스로의 경험에 비추어서 신앙을 떠난 도덕적 수양이란 것이 헛것임을 깨달은 것이오 내 혼이 죄에서 벗어나기 전에 겉으로 아무리 고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식에 불과하다고 나는 깨달았소. 스물 여덟 살(\*1919년-인용자 주) 되는 겨울에 나는 도덕적으로 내 인격을 개조하리라는 결심을 하고 마흔 세살(\*1934년-인용자 주) 되는 봄, 내 어린 아들이 죽을 때까지 십 오년 간 나는 이 개조생활을 계속하노라 하여 …(중략)…하였으나, 스스로 돌아보건대, 제 마음속은 여전히 탐욕의 소굴이어서 십 오년 전의 내가 그 더러움에 있음을 발견하였고 …(중략)…이러다가 나는 법화경을 읽는 자가 된 것이오 이 집에 온 후로 육년 간 날마다 법화경을 읽은 자가 된 것이오 …(중략)… 나는 육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더러운 중생이겠지요. 예와 같은 탐욕과 예와 같은 질투와. 그러나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 달라진 것은 있소 지금 나는 부처를 향하고 걸어가느니라 하는 믿음 말이오.”<sup>46)</sup>

이광수의 전향과 관련하여 아마 가장 많이 인용되었을 글이 바로 위의 「육장기」 일 것이다. 그는 한편으로는 친일 행각을 벌이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그것을 민족을 위한 일로 변명하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위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종교, 신앙)에 몰두하고 있었다. 후자의 일(종교)은 이미 1934년경부터 시작되고 있었으며, 전자의 일(친일)이 1938년 말경 여기에 덧붙여진 것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볼 수도 있을 듯하다.

46) 이광수, 「육장기」, 『문장』, 1939.9, 『이광수전집』 8:43.

춘원 이광수가 자신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랑에 바탕한 민족과 인류의 혼의 구제, 이것을 새로운 개조론의 목표로 삼기 시작한 것은 1934년경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이 시기에 속세를 떠나려 했지만 가족들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대신 산장을 지어 거기에서 불교 경전을 읽는 승려나 다름없는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1938년말경 그가 친일로 전향할 무렵 그는 그 집(홍지동 산장)을 팔고 다시 속세로 돌아온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친일파라고 민족의 지탄을 받고 고립될수록 그는 관념(‘종교’) 속에서 더욱 절실하게 절대자에 매달리고 구원을 찾았다. 이것이 그의 전향초기 작품(「축원」1939.4.)에 ‘친일’과 ‘민족애’의 ‘모순’이 불교의 논리와 함께 나타나게 된 경위라 할 수 있다.

#### 4. 맺음말

본고에서는 『윤치호 일기』를 통해 춘원 이광수 친일의 배경과 그 이유 등을 살펴보고자 했다. 윤치호와 이광수는 실력양성을 통한 민족의 독립이라는 ‘준비론’ 사상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윤치호의 일기는 이광수의 모습을 좀 더 큰 맥락 속에서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거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두 사람은 모두 대표적인 친일파이기에 그들의 자기 변호의 말은 비판적 거리를 갖고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객관적 진실에 대한 추구를 위해서라도 우선 그러한 내적 시각들에 대한 검토 또한 일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윤치호 일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서북파와 기호파의 갈등이나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둘러싼 쟁투 등 민족운동 세력 내부의 분열상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러한 문제들이 이광수에게도 고통과 절망으로 체험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몇몇 사건들의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향의 직접적 계기라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수양동우회 사건을 겪으면



서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본고에서는 그 전후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했다. 일제가 대륙 침략을 본격화할 무렵, 수양동우회와 흥업구락부 사건 등으로 민족운동 지도자들이 구속되던 시기, 자신과 투옥된 동지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춘원은 전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그의 친일 행각은 양적, 질적으로 심화되어 갔다.

본고에서는 춘원 이광수의 친일로의 전향 초기의 작품들에서 보이는 ‘친일’적 면모와 ‘민족의 구원’을 추구하는 모습 등이 모순적으로 공존하는 현상 자체가 민족을 위해 자신이 희생한 것, 그리고 그 일을 종교적인 맥락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해 보았다.

“사회와 민족의 행복을 위해 개인과 파벌의 이해를 희생하는 자세”(윤치호의 1919년 8월 29일 일기)<sup>47)</sup> 이것은 윤치호가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바이자 이광수 또한 친일로 전향하면서도 그것을 자신이 이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적어도 그 자신만은 진실로 그렇게 믿었던 듯하다.

본고에서 이광수의 모습을 비춰본 『윤치호 일기』는 아쉽게도 1943년 10월 7일자로 끝나고 있다. 하지만 해방 직후인 1945년 10월 15일과 20일에 그가 미군정과 이승만에게 보낸 영문 편지 두 편이 남아 있다. 특히 20일자 편지의 마지막 구절은 윤치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문자이자, 이광수가 당대인뿐만 아니라 그의 글을 읽을 모든 이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기도 할 것이다. 이 문장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고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사소한 개인적 야심과 당파적인 음모와 지역간의 증오심일랑 모두 묻어두고,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익을 위해 다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민중의 무지와 당파간의 불화 속에서는 우리 조상의 미래를 낙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열되지 말고 단결해야 합니다.”<sup>48)</sup>

47) 김상태 편역, 앞의 책, 132면.

48) 윤치호, 「한 노인의 명상록2-1945.10.20」, 김상태 편역, 앞의 책, 631-2면.

## 참고문헌

### 1. 자료

- 김사엽 편, 『(춘원 이광수 애국의 글) 독립신문』, 문학생활사, 1988.
- 김상태 편역, 『윤치호 일기(1916-1943)-한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통해 본 식민지시기』, 역사비평사, 2001.
- 박정신 외역, 『(국역) 윤치호 영문 일기(1-10)』, 국사편찬위원회, 2014~2016.
- 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전집 2』, 평민사, 1995.
- 이광수, 『춘원시가집』, 박문서관, 1940.
- 이광수, 『돌벼개』, 생활사, 1948.
- 이광수, 『이광수 전집(1-10)』, 삼중당, 1971.
- 이광수, 『이광수전집』 제19권, 삼중당, 1963.

### 2. 단행본

- 김동인, 『김동인전집(6)』, 삼중당, 1976.
- 김원모, 『영마루의 구름-춘원 이광수의 친일과 민족보존론』, 단국대학교출판부, 2009.
- 김윤식, 『김동인 연구』, 민음사, 1987.
-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1-3)』, 한길사, 1986.
- 반병률, 『통합임시정부와 안창호, 이동휘, 이승만-삼각정부의 세 지도자』, 신서원, 2019.
- 안병욱 외, 『안창호평전』, 청포도, 2007.
- 조용만, 『육당 최남선』, 삼중당, 1964.
- 주요한, 『주요한 문집 새벽(1)』, 요한기념사업회, 1982.

### 3. 논문

- 구미정, 「개화파에서 친일파까지 윤 치호의 민낯을 보다: 박정신 총괄, 『국역 윤치호 영문일기』 1-10, 『현상과 인식』 통권 144호(가을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20. 9, 257-314면.

- 김상태, 「1920~1930년대 동우회·홍업구락부 연구」, 『한국사론』 28,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2.12, 209-262면.
- 이명화, 「도산 안창호의 서대문형무소 투옥과 수감 생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 171-218면.
- 장유승, 「조선후기 서북지역 문인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0.1.
- 장유승, 「(서평) 서북 지역 연구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다-정주아, 『서북문학과 로컬리티』, 서명출판, 2014」, 『민족문학사연구』 56,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4.12, 464-471면.
- 정주아, 「한국 근대 서북문인의 로컬리티와 보편지향성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1.2.

■ Abstract

The background of Lee Kwang-soo's 'Pro-Japanese' in *Yun Chi-ho's Diary*

-The division within the nation and the oppression of Japanese imperialism

Lim, Soo-man

This paper tracked Lee Kwang-soo(李光洙)'s aspect in *Yun Tchi-ho*(尹致昊)'s *Diary* (1883-1943) which as recorded by Yun Tchi-ho for more than 60 years and has great historical value. Specifically, the starting point of the study was the question of what would be the reason and motivation of Chunwon(春園) Lee Kwang-soo's pro-Japanese activities.

While reading the *Yun Tchi-ho's Diary*, I came to think that it was not only due to colonial oppression policy, but also related to the division within the national movement that originated from local emotions, factional fights, and ideological disputes that have been repeated for this people. Whenever he was surrounded by such fights and attacks, he was bound to be disappointed and frustrated.

However, the question of why he, who used to rise again after overcoming such despair, at some point "transferred" his position to "pro-Japanese" was still not solved. This seemed to be related to the awkward and unfamiliar appearance of the pro-Japanese poem [The Praying(祝願)](1939.4) at the beginning of *A collection of poems written by Chunwon* (1940.2), that is, the sudden appearance of pro-Japanese content and the strange appearance of his continuous love for the people coexisting with religion. Why was he showing that? Perhaps it was a phenomenon that showed the contrivance of the change of direction to pro-Japanese, whether he was conscious or not?

If we pay attention to the confession contained in the essay 「The Story of Selling the Cabin」(1939.9), it seems that there was a more active motivation. In other words, it is the realization that "before my soul is freed from sin" is in vain, and that it is not necessary to

reform the nation through the cultivation of skills so far, but it is now necessary to move to the level of faith that modifies the "soul." It was also triggered by the oppression of the colonial rulers, but it was also a conclusion drawn by Chunwon himself in the desperate situation he was experiencing. In other words, he seems to have judged that "independence" is not only impossible but also meaningless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still only a sectarian conflict even in a situation where it has been reduced to a colony.

Now, his theory of preparation goes beyond "training skills" and moves toward reforming ethnicity and humanity itself. It can be seen that his attempt to purify and revive the "soul" of himself and his people by leaning on "religion" was due to this realistic situation and despair.

Key words: Lee Kwang-soo, Yun Tchi-ho, Ahn Chang-ho, division, national reform, pro-Japanese conversion

접수일: 2022년 11월 25일

심사일: 2022년 12월 13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16일